

집★



〈출판저널〉

발행인

이정일


책은 진리의 씨앗입니다. 삶의 지혜가 책에 있다는 것은 거듭 얘기할 필요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책 안에 사람이 살고, 사람의 가슴 속에 책이 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책과 사람은 그런 점에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요, 생명입니다.

여기 7개월 동안 휴지기를 가진 〈출판저널〉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출판저널〉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지면이 아니라, 책을 쓴 사람과 문화의 세계를 얘기하고, 책을 펴낸 사람과 문화의 소통을 얘기하는 마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판저널〉은 하나의 집입니다. 새로 지은 집 〈출판저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에는 여러 식구가 모여 삽니다. 집에는 늘 안온함만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견고할 수도 있고, 다소 영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모든 갈등의 치유소라는 점에서, 모든 의견의 집합소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잠자리라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공동체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저널〉은 바로 그런 집이고자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그 집의 시공자일 뿐으로서, 이제 여러분의 지적 산물들이 살아 숨쉬고, 함께 걸어가고, 그래서 문화를 살찌게 하는 공간으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해 6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전 한국출판금고)으로부터 〈출판저널〉 발행권을 넘겨받아 7개월의 휴지기를 갖는 동안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7개월은 〈출판저널〉에 대한 각계의 관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여론을 수집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는 모색기였습니다. 각계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익단체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공기공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출판정론지를 펴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판저널〉에 '책이 좋다, 사람이 좋다'는 슬로건을 내걸니다. 이것은 〈출판저널〉이 15년 동안 유지해 왔던 서평지로서의 순기능과, 정보정론지로서 보다 따뜻한 사람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며, 책의 문화를 얘기하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출판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숨쉬는 집, 〈출판저널〉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2003년 2월
이정일